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미 연방 부채율 위험해진다

[미국 금융]

- WSJ: 올해 미 세금 환급액, 가계 부채 메우는 데 들어가
- CNBC: 6월 금리 인하 베팅 줄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뛰어
- Bloomberg: 투자자들, 이제는 연준보다 더 낮은 금리 인하 예상

[미국 생활]

- CNN Business: 미국인들 저축 힘들어 은퇴 위기 커진다
- Bloomberg: 미국인들 저렴한 차량 구입한다

[인공지능]

- WSJ: 미 대형 테크 회사들, 반도체 장비 생산 지역을 중국에서 멕시코로 눈 돌려

[오일]

- WSJ: 유가 5개월 만에 최고치 ... 중동 긴장 고조된 탓
- CNBC: 모건 스탠리, “글로벌 가스 과잉 공급 최고치 된다”

[중국 경제]

- Bloomberg: 미국, 한국에 중국 칩 관련 수출통제 강화 요청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테슬라 1분기 차량 판매량 감소 ... 전기차 시장 약세 탓
- CNN Business: OpenAI, 사람 목소리 흉내 내는 AI 공개
- CNBC: 메이시스 매장 폐쇄 전부터, 경쟁 소매체인들 기회 감지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A Million Simulations, One Verdict for US Economy: Debt Danger Ahead

미 연방 부채율 위험해진다

- 연방의회 예산실의 최근 예측에 따르면 미 연방 정부 부채 규모가 작년의 경우 GDP의 97%에서 2034년에는 116%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. 이 향후 수치는 세계 2차 대전때 미국의 부채율보다 높고, 실제 전망은 더 나빠질 수 있다.
- 한편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가 향후 부채 전망을 평가하기 위해 1백만번의 시뮬레이션을 시도해 봤는데 시뮬레이션의 88%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GDP 대 부채의 비율은 지속되지 못하는 경로라는 것. 즉 향후 10년간 부채율이 증가하게 된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**WSJ: Where Are This Year's Tax Refunds Going? Right Into a Debt Hole.
올해 미 세금 환급액, 가계 부채 메우는 데 들어가**

- 미국인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가장 높은 비율로 신용카드와 자동차 용자를 갚지 못하고 있다. 이런 상황에서 세금 환급액이 이들 상당수에게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.
- 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자동차 용자 등을 포함한 미국인 가계의 부채는 작년에 1백75억불로 나타났다.
- 부채가 늘고 있는 이들은 세금 환급액으로 용자를 갚아나가는 데 쓰고 있다. 관련 조사기관인 Lending Tree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40% 정도는 세금 환급액을 생활비에 충당한다는 것. 이 수치는 작년보다 4%올랐다.
- 3월 중순 현재 올해 평균 세금 환급액은 3천1백9달러다.

WSJ 기사

**CNBC: 10-year Treasury yield jumps as bets on June rate cuts cool down
6월 금리 인하 베팅 줄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뛰어**

- 오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크게 뛰었다. 7 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한 4.397%에 거래 중인데 이는 올해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인 데다 지난 2주간 가장 높았다.
- 이는 투자자들이 6월 연준이 첫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재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.
- 2년물 수익률은 1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4.726% 포인트 기록했다.

CNBC 기사

**Bloomberg: Markets Are Back to Seeing Fewer Rate Cuts Than the Fed
투자자들, 이제는 연준보다 더 낮은 금리 인하 예상**

- 지난주 짧은 기간 동안에 연준과 투자자들은 통화정책 완화 관련해 같은 입장을 보였다.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하고 투자자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.
- 올해 들어 거의 내내 연준 관리들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였던 투자자들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다.

- 연준의 3월 19일부터 양일간의 회의 이후에 발표된 중간치 전망 금리 인하는 75베이시스 포인트(총 3차례 각각 0.25%씩 인하)였는데 오히려 투자자들은 인하 폭을 65베이시스 포인트(0.65%)로 예상하고 있다.
- 이 같은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재평가 때문에 이들은 더 높은 미국 채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.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생활]

CNN Business: Retirement crisis looms as Americans struggle to save 미국인들 저축 힘들어 은퇴 위기 커진다

- 75세 이상의 노동시장 종사자 숫자가 향후 10년이 지나면 현재의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. 은퇴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.
- 미국은 은퇴 대비 수단으로 3가지가 있었다. 그런데 펜션 연금을 거의 사라지고 있다.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수입의 거의 90%를 차지하는 이들은 노인들의 4분의 1 이상이다. 그런데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75년 동안 적자라 향후 2030년 중반이 되면,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, 연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.
- 401(k)도 민간 기업 노동자 68%가 접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50%만이 사용한다는 것이다.

CNN Business 기사

Bloomberg: Americans Are Buying Cheaper Cars 미국인들 저렴한 차량 구입한다

- 미국 자동차 시장이 경기 둔화의 예상을 깨고 또다시 분기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. 그러나 자동차 용자 관련 높은 비용으로 미국인들은 싼 자동차에 눈을 돌리고 있다.
- 대형 픽업 매출은 줄고 있는 반면에 작은 컴팩트형 SUV 차량의 매출은 늘고 있다.
- 그리고 자동차 용자 부담은 높지만 자동차 구매 수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[인공지능]

WSJ: U.S. Tech Giants Turn to Mexico to Make AI Gear, Spurning China 미 대형 테크 회사들, 반도체 장비 생산 지역을 중국에서 멕시코로 눈 돌려

- 미국의 일부 대형 인공지능 회사들은 대만에 있는 생산 파트너들에게 AI 관련 하드웨어들의 생산을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멕시코에서 생산토록 요청하고 있다.
- 이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큰 위탁 전자 제품사인 대만 소재 Foxconn와 다른 대만 회사들은 이 같은 요청에 귀를 기울여 멕시코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.
- 특히 이들은 미 멕시코 캐나다 자유 무역협정을 활용하고 있다. 이에 따라 중국에서 멕시코로 생산 지역을 옮기는데 수십억 달러를 유치했다.

WSJ 기사

[오일]

WSJ: Oil Prices Jump to Five-Month High on Mideast Tensions 유가 5개월 만에 최고치 ... 중동 긴장 고조된 탓

- 이스라엘의 다마스쿠스 소재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해 시리아와 이란이 공개적으로 비난한 이후, 유가가 상승했다. 지난 10월 이래 최고치이다.
- 브렌트유 선물은 화요일 1.75 상승, 배럴당 89달러를 기록했다. 미 원유 선물은 1.9% 상승, 배럴당 85달러를 기록했다. 가자지구 분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'그림자 전쟁'의 가능성이 높아진 이후의 상황이다.
- 이는 OPEC+ 카르텔의 감산으로 이미 공급이 줄어든 석유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.
- 트레이더들은 가자지구의 분쟁이 중동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여, 다른 석유 생산국의 공급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.

WSJ 기사

CNBC: The global gas glut could reach multi-decade highs in the coming years, Morgan Stanley says 모건 스탠리, "글로벌 가스 과잉 공급 최고치 된다"

-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다. 예정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서 전 가스 과잉 공급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.
- 최근 액화천연가스(LNG)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, 가격과 수익이 상승했고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다. 현재 연간 1억5천만 톤 이상 용량의 LNG 기지가 건설되는 중이며, 이를 두고 모건 스탠리는 "기록적인 확장세"라 표현했다.

-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들은 “향후 수십 년간 가스 시장의 공급 과잉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말했다.

CNBC 기사

[중국 경제]

Bloomberg: US Asks South Korea to Toughen Up Export Controls on China Chips

미국, 한국에 중국 칩 관련 수출통제 강화 요청

- 미국이 자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,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 기술 수출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.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칩 제조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이다.
- 관계자에 따르면, 미국 관리들은 한국이 메모리 칩 제조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에 대해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- 미국 관리들은 지난 3월에 윤석열 정부와 해당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. 미국은 6월 중순의 G7 정상회담 전에 합의하기를 희망한다. 하지만 서울 측 관계자들은, 여전히 중국이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, 미국 측 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Tesla's First-Quarter Vehicle Sales Fell As EV Market Cools

테슬라 1분기 차량 판매량 감소 ... 전기차 시장 약세 탓

- 2020년 이후 처음으로, 테슬라의 분기별 인도분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.
- 테슬라는 2024년 1분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38만6천8백10대의 차량을 인도했다.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.5% 감소한 수치이며,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분기 실적이다.
- 화요일 오전 테슬라 주가는 약 6% 하락했다. 올해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월요일까지 거의 30% 하락하여, S&P500 지수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.

WSJ 기사

CNN Business: OpenAI says it's working on AI that mimics human voices **OpenAI, 사람 목소리 흉내 내는 AI 공개**

- OpenAI 가 사람의 목소리를 정확히 흉내 내는 새로운 인공지능 도구를 공개했다.
- AI 음성 생성기는 다방면의 서비스에서 활용될 예정이나, 오남용의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중이다.
- 금요일 OpenAI는 '보이스 엔진(Voice Engine)'의 초기 테스트 샘플을 공개했다. 해당 도구는 15초 분량의 음성 샘플을 사용해 음성 복제품을 생성하고, 이후 사용자가 제시한 문장을 생성된 음성으로 읽어낸다.

CNN Business 기사

CNBC: Macy's hasn't closed 150 stores yet. But Target, Kohl's CEOs already smell opportunity

메이시스 매장 폐쇄 전부터, 경쟁 소매체인들 기회 감지

- 메이시스의 150개 매장 폐쇄 관련 계획이 시행되기도 전에, 이미 경쟁 소매체인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습이다. 이들은 백화점의 일부 매장 폐쇄로 20억달러의 매출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.
-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Target의 CEO인 Brian Cornell과 Kohl's의 CEO인 Tom Kingsbury는 백화점의 규모 축소 결정이 그들에게 매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.
- 이번 폐쇄는 Ross와 Nordstrom을 비롯한 다른 많은 소매업체에도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. Earnest Analytics의 분석에 따르면, 이들 업체는 이미 메이시스의 고객들을 자사의 고객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
CNBC 기사

[보고서]

3년 내 만기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2천700조원..."은행 비상"

"3년간 만기 대출 중 907조원, 문제 소지 있어"

향후 3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2조 달러(약 2천700조 원)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(FT)가 1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
부동산 자문 및 중개회사 뉴마크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2조 달러에 달하며, 현재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로 재융자돼야 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.

이중 올해에만 9천290억 달러(약 1천258조 원)의 대출이 상환되거나 재융자돼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ccsend.com